

‘파라오’ 람세스 2세, 여권 갖고 파리행 비행기 타다

황제의 세계사

조지무쇼 편저·김정환 옮김

영국에서 전해오는 일화 가운데 엘프레드 대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엘프레드가 바이킹과 전투에서 패배해 어느 농가에 숨어들었다. 안주인이 숨어 있는 동안 빵이 구워지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하를 다스려도 영생을 얻지 못한 진시왕,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의 아우구스투스 에 이르기까지 익히 아는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국박물관 이집트관에 전시된 람세스 2세의 흉상.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 때문에 친근하게 다가온다.

한 예로 '여권을 갖고 파리행 비행기를 탄 파라오'인 람세스 2세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3세기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비행기를 그렸든 여권을 소지하고 파리로 떠날 수 있을까?

정확히는 '미라'를 화물기 아닌 여객기로 대우했다는 의미다. 이집트 정부는 람세스 2세의 미라의 직업란에 '파라오'라고 기재된 여권을 발행했다. 파리 공항에서는 프랑스 대통령 의장대가 예우에 맞게 영접했다. 람세스 2세가 이집트 역사와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세계 최초 강화 조약을 맺어 평화를 이끌었으며, 당시 건축물은 구약성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세계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

모토무라 료지는 이렇게 말한다. "헤겔은 '민중이나 정부'는 역사에서 무엇 하나 배운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분명히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인간이라면 이것저것 상상해볼 수 있다. 어쩌면 상상력이라는 마음의 유희야말로 학습 능력을 북돋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의 길·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엘프레드는 바이킹과의 전투에 몰입한 나머지 깜빡 빵이 타버린 사실을 잊어버렸다. 화가 난 안주인이 엘프레드를 두들겨팼다. 이때 엘프레드 부하가 나타나 왕의 신분을 밝히자 안주인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엘프레드는 이렇게 말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짐의 잘못이오"라고. 위의 사례는 엘프레드가 얼마나 도량이 넓은 인물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영국 역사에서 추앙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바이킹 위협에 시달리던 9세기에 나타난 지도자로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근간을 닦았다. 그가 왕을 넘어 대왕으로 불리는 이유다.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제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 나왔다. '쉽게, 재미있게, 정확하게'라는 3대 슬로건을 내걸고 설립된 기획편집 집단인 조지무쇼가 펴낸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황제의 세계사'가 바로 그것.

책에는 람세스 2세를 포함해 고대 바빌론 제1왕조부터 근대 제정 러시아를 아우르는 30인의 황제가 나온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함무라비 왕부터 '천

갑수를 맡은 모토무라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흔히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말하지만 무조건 그렇기만 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의문이라면 그저 우문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 만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없었다면 헬레니즘 세계가 성립할 수 있었을까?"

위에 언급한 왕들 외에도 역사 시간에 들었거나 배웠던 이들도 적지 않다. '옛 로마제국의 영광을 바란 불면의 일별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황제의 의무는 '과학'과 '대학'임을 몸소 실천했던 프리드리히 2세를 비롯해 '포용의 용광로로 전승기를 만든' 솔레이만 1세, '중국 역사상 가장 긴 61년간 황제 노릇'을 강희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을 만든 유럽의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 '최고로 무능했던 최고의 교양인' 니콜라이 2세와 '까막눈도 유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아르바르대제도 눈에 띈다.

책의 특징은 일반적인 지식 전달에 있지 않고 교양과 재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양을 넘어 흥미 부분에도 신경을 썼

새로 나온 책

▲아이 가져서 죄송합니다 = 두 아이를 키우는 저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송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제도과 분위기 속에서 직장에 다니다. 떠쓰는 아이를 참지 못하는 동네 어른, 어린이집 셔틀버스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 다며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 시끄럽고 산만한 아이가 어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카페나 식당 안 손님들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여러 감정과 고민을 이 책에 풀어놓았다. <루아크·1만3500원〉



▲심대, 인권의 주인공이 된다 = 나답게 살고 싶은 십 대들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을 둘러싼 인권 이슈'를 알아보는 사회과학 책이다. 청소년 노동자, 만 18세 선거, 디지털 인권, 다문화 청소년, 학교 폭력 등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시사 이슈의 중심에는 십 대가 있다. 책은 청소년을 둘러싼 인권 이슈, 인권이 발전해온 과정 등을 살펴본다. <뽀파스·1만3000원〉



▲금융시장으로 간 진화론 =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투자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 앤드류 로 MIT 경영대 교수는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 2020년 금융시장을 설명한다. 금융시장의 본질과 작동 방식, 큰 흐름에 대한 전망을 '적응적 시장가설(Adaptive Market Hypothesis)'에 입각해 설명한다. 또 투자의 패러다임에 관해 '금융이 우리의 목표를 좌우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가 금융을 좌우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뷰크온·2만4500원〉

▲일곱개의 회의 = 실적 압박 때문에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한 영업부 회의실. 만년 계장 '야스미'는 오늘도 어김없이 졸다가 발표를 망친다. 이 일로 갈등이 촉발돼 직속 상사이자 영업부 에이소로 승승이 자자한 '사카도'는 야스미에게 노골적으로 폭언과 질책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러자 야스미는 기다렸다는 듯 사카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해버린다. 조직 내의 '내부고발'을 둘러싼 오피스 버스 군상극을 담았다. <비채·1만4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작은 우리 =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친구, 우리 학교. 태어남과 동시에 생기는 '우리'라는 말은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핵가족을 이루고 개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라는 개념은 소속감과 친근감을 들게 할 뿐 아니라 자신감과 당당함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의미다. 책은 '나'만큼 자주 쓰이는 '우리'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일상의 생활을 예로 들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씨드북·1만2000원〉



▲가보가 중요해! = 주인공 다은이는 학교 발표 때문에 가혼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혼만 조사하다가 다른 친구들의 발표와 선생님이 주신 선물을 보면서 가보까지 찾게 된다. 엄마, 아빠의 반응은 시큰둥하지만 결국 다은이는 엄마가 보여 준 무상 사랑을 보고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또 가보가 무조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좋은책어린이·9000원〉

▲나는 어때? = 주인공 시몽은 늑대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저자 스테파니 블레이크는 늑대를 '무시무시하고 사납고 난폭한 늑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사랑스러운 친구로 소개한다. 늑대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화나는 순간, 슬픈 이유, 자랑하고 싶은 것과 무서워하는 것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어린이 친구들에게 다가간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유럽 지성사 등장인물들이 엮어낸 '베토벤 담론'

베토벤

마르틴 게크 지음·마성일 옮김

베토벤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중 한명이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베토벤의 음악은 어딘가에서 연주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올해는 전 세계에서 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주하는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역시 올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등을 연주하고 3월 광주주요예회관을 찾은 흥광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교향곡 5번 '운명'을 들려줄 예정이다. 베토벤의 극적인 인생과 작품 역시 '불멸의 연인', '카펫 베토벤' 등 영화와 평전을 포함 다양한 형식으로 조명돼 왔다.



토벤 담론이다.

한 작곡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겠지만 그의 삶을 다양한 인물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들여다보는 방법 역시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책은 한 인물의 인생을 따라가는 기존 전기나 평전과 달리 베토벤을 둘러싸고 논의되는 12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36명의 역사적 인물들이 길

라잡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등장인물은 슈베르트, 클라라 슈만, 번슈타인, 셰익스피어, 토마스 만, 헤겔, 들리츠, 아도르노, 카스파 다비트 등 작곡가, 연주자, 작가, 화가, 철학자를 아우르며 영리한 수수께끼로 남은 '불멸의 연인'도 모습을 드러낸다.

첫번째 주제 '거인주의'에는 독일 이상주의를 대표하는 헤겔과 훔볼트, 베토벤이 모두 숭배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한다. 그를 통해 '세계 정선'을 만났다고 생각한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는 교향곡 3번에 '에로이카'라는 제목을 붙였다. 하지만 이후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헌정 표지를 찢어버린다. 베토벤은 "무엇보다 자유를 사랑하라, 진실을 결코(왕 앞에서라도) 부인하지 말라"는 글을 남긴 인물이었다.

또 한명은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빛을 받았고, 히틀러 나치 정부의 알곡마담 역할을 해야만했던' 지휘자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다.

두번째 주제 '확고함'에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와 베토벤의 피아노곡의 관계를 들려주며 '멋진 신세계'로 유명한 헉슬리는 대표 소설 '연애 대위법'에서 '베토벤이야말로 자신의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책은 그밖에 자연, 환상성, 초월, 유포피아, 베토벤의 그림자, 베토벤 명연주자들 등의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번역자 마성일이 '옮긴이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책을 읽는 독자들은 '책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과 베토벤이 맺고 있는 그물망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서양 예술사와 정신사에 깊이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북랩퍼스·3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